

가로등 꺼진 나주... 시민들 밤길 걷기 겁난다

나주읍성·산책로 조명 시설 고장난채 방치 市, 예산 타령만... 자칫 우범지대 전략 우려

나주시에 문화재, 산책로 등의 조명 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어 주민과 외지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잦은 고장 등으로 늘어나는 유지·보수 예산 탓을 하고 있으나 우범지대로 전략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사적 제337호인 남고문, 동점문, 서성문 등 나주읍성 문의 경우 성을 비추는 조명과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고도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나주읍성에 주민인 남고문도 조명이 설치돼 있지만 가동을 하지 않아 수습여원을 들여 성을 복원하고도 야

간에는 전혀 볼 수 없도록 해왔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산책코스인 나주종합스포츠파크와 시민공원, 아파트 산책로에 상당수의 가로등이 고장 나가거나 작동을 하지 않아 접근조차 어려웠다. 나주종합스포츠파크의 경우 인라인스케이트 경기장에는 야외 화장실과 공원이 조성돼 있지만 가로등은 전멸돼 있는 상태였다. 또 국도 13호선 옆 나주호반아파트 산책공원의 경우 체육시설과 정자가 설치돼 있지만 가로등 8개 중 작동되

는 가로등은 2개에 불과해 청소년들에 탈선 장소로 전략하고 있다. 더욱이 인근 대방아파트 산책공원은 가로등조차 없었다. 특히 나주에 관문이고 열광인 나주역과 시청 주변과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나주천에 가로등도 상당수가 고장나 방치, 시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음산하기까지 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호반아파트 주민 남중수 생활안전협의회회장은 "아파트 옆 산책로에 청소년들의 흉한 장면이 자주 목격돼 무서웠다"며 "우범지대로 전략하고 있는 산책로에 불량가로등을 교체해달라고 시에 수차례 민원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남고문과 동점문에 조명은 고장이 나 수리업자가 견적중이며, 산책로에 가로등도 조속히 수리하겠다"며 "하지만 가로등 설치 예산 2000만원과 유지비 1500만원으로는 그때그때 유지·보수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장성 승마클럽 '효도잔치'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빅토리 승마클럽 이종진 원장이 남면과 진원면 어르신들 100여 명을 초청, 경로 효도잔치를 열었다.

/장성=김홍희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읍 초동리

마을회관 완공

강진군 강진읍 초동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회관이 완공됐다. 8일 강진읍 군수를 비롯한 관공체

도의원, 김남수, 윤기현, 윤희숙 군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읍 초동 마을회관 준공식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말 공사에 들어간 초동 마을회관은 군비 9000만원을 투입해 82.2㎡ 규모이며, 방 2개, 집무실 1개,

주방 1개 등을 갖췄다. 초동마을 김재영 이장은 "기존 회관이 노후 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해 했다"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마을회관이 건립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새들의 낙원' 담양 북면 전남자연환경연수원

대학생·조류 관계자 발길 잇따라

동아대 생명과학과 9년째 실습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주변이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낙원으로 알려지면서 조류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아대 생명과학과는 올해까지 9년째 이곳을 찾아 조류학 종합야외실습 캠프도 열었다. 지난 3일 전남자연환경연수원을 찾은 부산 동아대 생명과학과 교수와 학생 50여명은 2박3일 일정으로 시작된 캠프를 통해 병풍산 계곡 등지에서 세력권 지도 작성, 센서스 현지조사표, 노래 부르는 위치 확인 등에 나섰다. 또 조별 녹음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연수원 주변에서 서식하는 새들이 사투리언어 연구에 나섰다. 연수원 주변 계곡은 5~6월 새들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로 새소리 조사에 가장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 또 주변 소음이 적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녹음하기가 쉽고, 새들의

과장의 변동 추이로 새들의 사투리를 조사 연구하는데도 가장 적합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탐사팀은 캠프 기간 세력권 스케치 지도, 철새 이동 실습, 동지 조사 및 짝짓기 조사 등을 완료했다. 탐사팀 관계자는 "병풍산 자락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오롯이 보존된 이곳을 영구 보존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나도팔 연수원 원장은 "천혜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연수원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더욱 힘을 쏟아 새들의 낙원으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원 계곡에는 희귀새인 원앙새 한 쌍이 서식하고 있으며, 다량의 노랑딱새, 흰배지빠귀 같은 희귀종이 서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화순경찰 '4대악 근절' 치안정책 간담회

보안협력위원 40명 참석

화순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11시 경찰서 4층 적폐마루에서 보안협력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보안협력위원회 치안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간담회는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 홍보와 더불어 경찰 협력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4대 사회악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간담회에 참석한 이병노 보안협력위원장은 "4대 사회악은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돼야 할 문제"라며 "내 자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최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창 화순경찰서장은 "그동안 보안협력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준데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의 4대 사회악 근절 노력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강진군 '싱겁게 먹기마을' 시범 운영

전국 최초...희망동네 현판식

강진군은 8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 싱겁게 먹기 실천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오는 16일까지 희망하는 30~50세대 거주 마을이 읍면사무소나 주민복지과 위생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싱겁게 먹기 실천 시범마을에 선정되면 싱겁게 먹기 실천 시범마을 선포식을 갖고 마을 자율운영위원회 구

성 및 현판식을 할 예정이다. 또 강진군 보건소와 강진의료원의 협조로 혈액 및 혈당측정 등 건강진단을 실시해 사업 실시 후 건강 변화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싱겁게 먹기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저염식 조리방법과 식단표 보급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이를 지키게 된다. 군은 올해 2개 마을을 선정하고 매년 확대해 자발적인 참여로 질병 없는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단신

혁신도시 이전 한국농수산물대학 착공

전주 만성동 42만㎡ 부지에 2014년까지 18개동 지어

전북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인 한국농수산물대학이 8일 혁신도시에서 착공식을 하고 건물 조성에 들어갔다. 한국농수산물대학은 이날 전주시 만성동 현장에서 남양호 총장과 원종복 전북도 혁신도시추진단장, 대학 교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했다. 이 대학은 2014년 말 완공 목표로 1761억원을 투입, 42만3966㎡ 부지에 18개동(5만2047㎡)의 건물을 짓는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가 갖춰진 에너지 효

율 1등급의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꾸며진다. 남양호 총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면 지역 주민에게 현장 접목이 가능한 농업 기술교육을 하는 등 전북 농업 발전을 위해 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학의 교직원 150여명, 학생 수는 1050여명이다. 지난 1997년 설립된 이 대학은 3년제 전문대학으로 식작과 특작, 채소, 과수, 화훼, 가축, 수산양식, 산림조경, 말 산업 등 10개 학과를 두고 있다. /전주=백익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아영면-고양시 창릉동 '도농상생' 자매결연

남원시 아영면은 7일 고양시 창릉동과 도농 상생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4월 22일 창릉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이 먼저 아영면을 방문하여 상견례를 갖고 자매결연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최병삼 아영면장, 김홍열 창릉동장, 김재천 흥부골아

영예총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인구 9000여명인 고양시 창릉동은 현재 급속히 발전하는 소비도시로 신선행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많고, 남원시 아영면은 포도, 사과, 감자, 흑돼지, 한우 등 품질 좋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해 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남원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400억 투입 전시관·체험·휴양시설 등 갖춰

지리산 둘레길 등 연계 관광명소 부상 기대

지리산 입구인 남원 운봉에 국내 최대의 백두대간 생태문화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모두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돼 2014년 말 완공된다. 8일 시에 따르면 백두대간 생태문화 조성사업은 백두대간 생태문화 전시관과 백두대간 생태문화 공원 체험 휴양 시설 등 2개 지역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백두대간 생태문화 전시관은 지리

산 둘레길과 가까우면서 옛 운천초교 주변인 지리산의 자연·생태·문화·이야기·역사를 모아 모형·패널·디지털 영상식으로 보여주고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 작용에 의해 각종 시뮬레이션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전시관이 들어설 부지는 운봉읍 주촌리 594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은 3만2967㎡에 부지형태는 한반도와 호랑이를 형상화했다. 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백두대간 마루급의

산줄기 형태에 따라 배치하게 되며, 백두대간 흐름이 굽이치는 유선형으로 건물 형태가 이뤄진다. 체험·휴양시설은 운봉읍 공안리 산 32-1번지 일원에 자리하며 대지면적은 21만545㎡다. 휴양 시설 내 설치되는 백두대간 테마로드에는 백두대간에 있는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등의 생태·역사·문화를 소개하고, 친환경적 쉼터 공간인 트리 하우스를 비롯해 전망대, 황토밭길과 산책로, 약초초 화원, 방향식물원, 계곡쉼터 등 오감 만족의 힐링시설이 설치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수확 앞둔 고창 수박단지 견학

고창 수박 첫 수확을 앞두고 고창군이 지난 7일 초청한 서울 한 대학 학생 45명이 무장면 탐과체 시범단지를 견학하고 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kwangju.co.kr

정읍시 '농업기술지도 서포터즈' 배치

정읍시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영농기술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지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읍면동 1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 상담소는 8명의 상담소장이 2~3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다 격일로 근무하면서 농업인의 영농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

결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 관련 직종에 20여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사항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서포터즈를 신태인 등 9곳에 배치해 농업인 상담소장과 교대로 근무하도록 했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

고창 65세 이상 500명에 카네이션 달아드려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소장 김복동)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나누며 행복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및 전문봉사' 행사를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이사장 김기원)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고창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한바탕 신나게 웃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롱잔치, 태권댄스 등 웃음과 흥겨움이 가득한 공연이 펼쳐졌다. 푸드, 의료, 이·마을 봉사, 발맞사지, 귀반사요법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남원시 추어양식농가 미꾸리 치어 분양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는 전국적으로 명성 높은 남원추어탕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관내 양식 농가를 대상으로 국내 유일하게 인공 부화시킨 미꾸리 치어(자어)중 겨울철 실내 양식한 1200 이상 치어 분양을 시작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분양은 미꾸리를 양식하기 위한 양식장 시설을 보유한 농가에 한해 이루어졌으며 대상 치어는 농업기술센터 인공중요생산 연구실에서 생산된 것으로 분양 시기는 오는 10월까지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군 신종 A형사황산 차단 방역활동

최근 중국에서 신종 A형사황산에 따라 순창군이 방역활동에 본격 나섰다. 8일 군에 따르면 관내 양계는 247개 농가에 240만수, 오리 36개 농가에 11만수, 순정축협 공동방목장을 활용하여 방역활동과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심혈을 기울

이고 있다. 군은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방역 실시와 축사 내 외부인 및 축사 출입 허가차량 외에 출입을 통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의심 축이 발생시에는 행정관서에서 조속히 활용하여 방역활동과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심혈을 기울